

목포 죽교동 샘골마을 새뜰마을사업 본격 추진

죽교동 샘골마을 새뜰마을사업 마스터플랜 확정...44억 투입 기초생활인프라 확충·주택정비·휴먼케어·주민역량강화 등

목포시가 죽교동 샘골마을 새뜰마을사업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고 본격 추진한다. 새뜰마을사업은 생활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죽교동 샘골마을은 지난 2021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국토교통부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오는 2024년까지 4년 동안 국·도비 35억원

등 총사업비 44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샘골마을(1~5동) 일원(27,273㎡)의 생활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죽교동 샘골마을은 지리적 특성상 급경사지 골목길이 많은데 주민 고령화 뿐만 아니라 인구유출까지 많아 공폐가가 32%에 이른다. 시는 이 같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위

크습을 11회 진행했고, 주민의견 수렴과 선진지 견학, 관련부서 실무협의를 거쳐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 마스터플랜 세부사업은 ▲기초생활인프라 확충(마을안길·위험지 정비, 안전시설 설치, 커뮤니티센터 조성) ▲주택정비(빈집철거,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집수리지원) ▲휴먼케어 추진(교육돌봄, 안전위생, 일자리 프로그램) ▲주민역량강화(마을가꾸기, 주민공동체 지원, 샘골문화프로그램 및 마을리더 교육) ▲기록화사업, 기본 및 실시계획, 사업관리 모니터링 등 5개 분야 15개 사업이다.

목포시는 빈집이 많은 죽교동 샘골마을의 실정에 맞춰 마스터플랜 확정 전 우선순위 사업으로 공폐가를 철거해 마을 뒷밭과 공동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주민이 개선된 생활여건을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주택정비와 안전시설 설치 등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가 위촉한 총괄코디네이터와 마을활동가 2명, 기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통해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휴먼케어, 주민 역량강화사업 등 생활 여건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목포=기동취재본부



영광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회 개최

영광군은 지난 1월27일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회'를 개최했다. 김정섭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주민대표 및 지역 보건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로,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계획안 보고, 심의안에 대한 질의응답 및 토론을 거쳐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심의안은 '제8기 영광군, 지역보건의료계획(2023~2026년) 4개년 중장기 계획'으로 '건강격차 해소로 차별 없이 건강을 누리는 영광'으로 비전을 정하고 3개 분야 추진전략과 10개 추진과제로 구성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건강검진 수검률 감소, 고혈압 및 당뇨병 관리 등 지역의 현황분석 결과에 따른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했고, 보건의료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했다. 김정섭 부군수는 "이번 제8기 영광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회를 통해 건강 수준 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해 민·관 협력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영광군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영광=서희권기자

함평군, 딸기 스마트팜 교육 '성료'

"명품딸기 생산 기반 구축 위한 다양한 시설 투자사업 실시"

함평군 농업기술센터가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딸기 스마트팜 교육'을 실시했다. 함평군은 "딸기 스마트팜 교육이 지난 1월 28일 농업기술센터에서 딸기 재배 농업인 4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내용은 ▲시설딸기 에너지 절감 신기술 ▲겨울철 환경관리를 통한 생산 증대 기술 ▲햇빛곰팡이병 관리 요령 ▲온실 환경 데이터를 이용한 작물의 생육 진단 및 해결 방안 등이다. 군은 딸기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온실 운영

을 통해 취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농업현장에 스마트팜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고품질 딸기 생산을 위해 시설딸기 온실 환경기반 컨설팅 사업,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조성 시범사업, 살균수를 이용한 딸기병해 예방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명품딸기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다양한 시설 투자사업을 실시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농업인 재배 기술 역량 강화



를 위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훈 기자

신안군, 종합청렴도 평가 3등급 받아...1단계 상승

신안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신안군이 지난해보다 1등급 상승한 3등급을 받았다. 신안군은 이번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3등급(73.6점)을 받았는데 외부채감도에서는 90점으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평균(85.1점) 대비 4.9점 높았으며, 내부채감도는 59.6점으로 전국 군 평균(58.6점) 대비 1.0점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신안군은 2022년도부터 새로 신설된 평가 항목인 청렴노력도 부분에서 전국 군 대비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원인분석하고, 2023년에는 반부패 추진계획수립, 기관장·고위직 노력과 리더십 등 부족한 부분에 중점을 두어 다양한 청렴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청렴도 평가 상승을 계기로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당한 신안" 구현을 위해 청렴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택주기자

영암군 "외국인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해요"...1년간 활동 계획

제1기 외국인주민 균정 모니터링단 발대식 개최



영암군이 지난 1월27일 영암군 외국인주민 모니터링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모니터링단은 공개모집을 통해 1년 이상 영

암에 거주하고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외국인 주민 중에 엄선하여 12명을 선정하였으며,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네팔, 중국, 캄보디아, 필리핀 등 8개 국적의 외국인근로자, 통·번역사, 결혼이민자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제1기 모니터링단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활동하며, 외국인주민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외국인지원 시책 홍보, 정책제안 및 의견수렴 활동을 통해 행정과 외국인주민 간 소통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외국인주민을 우리 지역을 함께 이끌어가는 동반자로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이에 발맞춰 영암군은 외국인주민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하며, 제1기 외국인주민 균정 모니터링단이 외국인주민 정착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방향을 제안해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활동을 주문했다. 영암=조대호기자

무안전통시장,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 최종 선정

무안군은 무안전통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3년 특성화 시장육성사업(첫걸음 기반조성)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2억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1월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해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특성화시장 기반조성 사업으로 시장당 1년간 최대 3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사업 주요 내용은 ▲결제편의·고객신뢰·위생정결 등 3대 서비스 혁신 ▲상인조직·안전관리 등 2대 역량강화 ▲83 청년스타점포육성·상설시장화·공동마케팅 등이다. 앞으로 해당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중기부의 평가 결과에 따라 특성화시장(문화관광형)으로 선정되어 24년부터 2년간 최대 10억원이 지원되는 기회가 주어질 상인들이 가는 기대가 매우 크다. 김산 군수는 "이번 사업은 민선8기에 군민과 약속한 '전통시장 관광 상품화' 공약을 이행하는 만큼 시장 상인들과 함께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추어 서비스를 개선해 명품시장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